

# 우리시대 르네상스를 기대하며

이석우

경희대 교수 · 서양사

굽다 고운 석양의 붉은 햇덩이가 서편하늘에 떨어지면 도서관 창문의 불빛이 더욱 환해진다. 저곳에서 젊음을 책에 가두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도서관을 꼭 메운 그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나고 누군가에게 물은 적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치·한의대 국가고시 준비를 하거나 CPA, 사법·행정 고시, 언론고시(?), 아니면 TOEIC TOFLE 준비에 바쁘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중에 인생의 고뇌를 대석학이나 사상가들의 글 속에서 해결하며 책을 읽고 있는 학생은 몇이나 되겠는가.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내 가슴은 안개가 낀듯이 답답해왔다.

근래의 대학 분위기는 비전과 가치창출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취업과 사회에의 현실적 적응이라는 실용적 측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의 방향 또한 이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이 현실이다. 다전공의 명분 아래 사실상 전공의 의미가 이미 희석되고 있다. 더욱 가공스러운 우려는 학생들을 취업에 필요한 실용적인 분야에만 모여들게 함으로써 문(文)·사(史)·철(哲)과 같은 기본과목들을 시들어버리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편식이 낳을 결과는 영양실조 뿐이다.

대학이 직업교육을 위주로 할 것인지, 가치교육 중심이어야 할 것인지는 중세 이래의 논쟁점이 되어왔다. 본인은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지나친 직업위주 교육 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기실 중세대학은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교육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했다. 그래서 인문자유학부를 마친 다음에야 전문직업과정이라 할 수 있는 신학·법학·의학 등의 마스터코스에 들어갈 자격을 주었다.

만일 대학이 이런 전인적 소양교육을 중심축으로 하지 않았으면 Universitas는 직업전수학교나 학원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까지 대학이 존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오늘의 대학이 지나치게 기능주의 교육 위주로 나가고 있는 것은 대학 스스로 그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그 함정을 파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솔직히 대학이 아무리 첨단기술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면 그것은 곧 녹슨 지식이 되고 말 것이다. 오히려 튼튼한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기술과 사회의 예견된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점에서 지식혁명을 소홀히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가치와 과정을 소홀히하고 경쟁과 결과만을 내세우는 교육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한경쟁은 무한전쟁과 다를 것없다. 발전과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은 타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발전인지 깊이 생각할 일이다.

기능과 사실위주만의 교육은 사실은 보되 진실은 보지 못하는 반쪽인간을 만들지 모른다. 인식은 대부분 추상작용이며, 판단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하버드대학의 로조프스키(Rosovsky)교수는 “교육의 원래 목적은 음미할 만한 가치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지 꼭 경제적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학이 거둬낸다는 것은 대학인의 사고력과 가치창출의 힘을 기른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시대의 르네상스를 기대해 본다. ♦

집중 취재	2	“역수출로 출판개방의 해일 뛰어넘자” 외국사들 직접출판 준비에 박차 ... 어학·교재출판에 타격
초점	4	방안에 앉아 정보도 얻고 책도 사고 사이버마켓 활발 ... 전근대적 유통·우송료 등이 걸림돌
기획 취재	6	일본에 볼모 잡힌 우리의 실용서들 서점가에 일본 번역서 넘쳐 ... 마케팅, 재테크 책들
출판가	6	출판사들 연대 모임·자회사 설립으로 새로운 모색
출판화제	8	재외 한인들 자서전·체험기 잇따라 선보여 9 경제침체 속 ‘돈 벌기’ 책 인기
저자 초대	10	‘테마가 있는 판소리 소설’ 펴내는 이청준씨
얼굴	11	안양의 터줏대감 대동서림 전영선 사장
신간읽기	12	키손 《피카소의 달콤한 복수》 — 김문환
신간 확대경	13	책벌레의 진화 — 시드니 버바
나의 학문과 책읽기	14	사라져버린 나의 고서 여섯권 — 김방한 책의 값어치가 보물 같던 시절의 추억
책갈피 산책	9	《개미세계여행》을 읽고 — 강규
	15	《100년 전의 여행, 100년 후의 교훈》을 읽고 — 이창훈
	22	《수학자의 신문읽기》를 읽고 — 정계섭
종합 서평	16	호영송·김이구·은희경의 소설집 — 권보드래
시집 서평	17	공광규·함민복·박라연의 시집 — 고미숙
서평	18	한국사상사연구회 《조선유학의 학파들》 — 안병걸 김영정 《심리철학과 인지과학》 — 민찬홍
	19	페브리 《16세기의 무신앙 문제》 — 광차섭
	20	매크래켄 《문화와 소비》 — 하태환 데이비스 《수학적 경험》 — 김태성
	21	리프킨 《생명권 정치학》 — 정수복
출판 통계	23	불황으로 발행종수·부수 감소 추세
책이 있는 풍경	24	새로운 문화현상 빚어내는 마법의 손 만화가 이현세씨의 서가
자료	26	'96 문체부 추천도서 목록
이 책 그 사람	28	《딸들에게 희망을》 펴낸 오숙희씨 《박박 비가지》 펴낸 서정호씨
	29	《길에서 쓴 그림일기》 펴낸 이호신씨 《어느 할아버지의 평범한 리더십이야기》 펴낸 박정기씨
	30	새책 속으로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②